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20·30대 68만명 쉰다

일·구직활동 않는 사람 255만명 달해

비경제활동인구 전년比 7만7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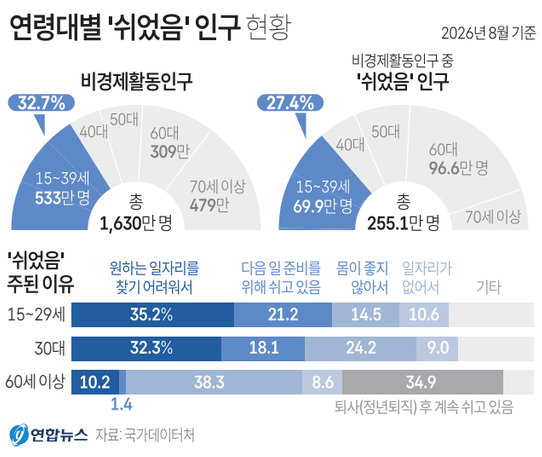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가장 높아

뚜렷한 사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2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 시장에 진입해 경제 '허리' 역할을 준비해야 할 20·30대 중에서 68만명이 '쉬었음' 상태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선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었다는 비중이 더욱 커져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9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7천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4%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작년과 같았다.

성별로는 여자(61.5%)가 남자(38.5%)보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았다. 남자는 5만5천명, 여자는 2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연령층으로 보면 70세 이상(29.4%), 60대(19.0%), 15-19세(13.1%) 등 연령대가 높거나 어린 계층 위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컸다.

1년 전과 비교해 70세 이상(23만2천명), 60대(5만3천명), 15-19세(3만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50대(-11만5천명), 40대(-7만1천명), 20대(-4만3천명) 등에선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는 '가사'(37.0%), '재학·수강 등'(20.6%), '쉬었음'(15.7%) 순으로 조사됐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였던 작년(264만1천명)보다 8만9천명 줄어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96만6천명), 20대(37만7천명), 50대(36만6천명) 순으로 많았다.

30대는 30만3천명으로 그다음이었고, 70세 이상은 25만7천명, 40대는 26만4천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20·30대로 좁혀보면 68만명이 그냥 쉬는 상태인 셈이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인구 비중을 보면 60대(37.9%), 70세 이상(10.1%)에서 작년보다 각각 1.9%포인트(p), 1.8%p 확대됐다. 20대(14.8%), 50대(14.4%)에선 각각 1.7%p, 1.6%p 축소됐다. 30대(11.9%)에서도 0.5%p 하락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4.4%),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9.9%),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8.9%)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9세와 30대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각각 35.2%, 32.3%로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각각 1.1%p, 5.0%p 확대됐다.

쉬었음 인구는 15-29세에선 13만9천명, 30대에서는 9만8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29세에서는 1만3천명 줄었으나 30대는 8천명 늘었다.

그 외 연령대가 쉬는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컸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24만명(19.9%)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비중이 0.5%p 하락하며 2018년(16.7%) 이후 가장 낮았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6.1%)가 대부분이었다.

희망 고용 형태는 '임금 근로자'가 9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7.1%에 그쳤다. 고용의 세부 형태로는 '전일제'(67.0%), '시간제'(25.9%), '자영업자'(6.9%) 순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36.2%)가 가장 많았고, '다른 일 또는 활동과 병행'(24.2%), '육아·자녀교육'(15.5%)이 그 뒤를 따랐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8%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30.4%, '100만-200만원 미만' 19.6%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고려사항은 '수입(수익)'(46.7%), '자신의 적성 및 전공'(24.1%), '자본금 규모 및 성장 가능성 등'(18.0%) 순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aT, 브라질서 K-푸드 팝업스토어 운영

전통문화·K-뷰티 체험 복합 공간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에서 운영한 K-푸드 체험형 팝업스토어에 현지 소비자 1만4천명이 방문하며 한국 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aT는 지난 10월3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형 쇼핑몰 엘도라도(Shopping Eldorado)에서 '제2회 K-푸드 유니버스 브라질'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브라질한국문화원,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사무소와 협력해 마련됐다. K-푸드 시식과 판매는 물론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행사장은 K-푸드 판매존과 마켓테스트존, K-주막, 기업 간 거래(B2B)존, 플레이존, K-뷰티존, Next K-푸드존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라면과 과자, 음료,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을 직접 맛보고 구매하며 K-푸드를 경험했다.

특히 마켓테스트존에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을 시식한 뒤 선호도와 제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샤인머스캣 맛 음료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aT는 행사에서 확보한 소비자 반응을 국내 수출기업과 공유해 브라질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의 음식과 주류 문화를 소개한 'K-주막'도 대표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보쌈과 전 등 한국 음식을 전통주와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해 현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K-뷰티존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선보였으며,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함께 운영한 쿠킹존과 문화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한국 음식 만들기와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안태호 기자

금값 급락…개미들 금 ETF 다시 몰려

국제 금 가격이 연초 대비 30%가량 급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하순께부터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 10월 마지막 주 'ACE KRX금현물' ETF를 24억원 순매수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이 ETF를 지난달 첫 한 주간(1-8일) 64억원 순매수한 뒤 12-16일 184억원, 19-23일 94억원 각각 순매도한 바 있다.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또 다른 ETF인 'TIGER KRX금현물'은 개인의 순매수세가 더 일찍 나타났다.

개인은 이 ETF를 지난달 1-8일 58억원 순매수한 후 12-16일에는 129억원 순매도했다. 그러나 19-23일 다시 20억원 매수 우위로 바뀌었고, 26-30일에도 12억원 '사자'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한전KDN, 베트남에 전력·에너지 솔루션 공급

비엣텔 솔루션즈와 파트너십 협약

스마트 시티·인프라 DX 등 추진



한전KDN은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베트남 비엣텔 솔루션즈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이 베트남 현지의 전력·에너지 솔루션 공급에 나선다.

4일 한전KDN에 따르면 전날 나주 본사에서 베트남 비엣텔 솔루션즈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4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비즈니스 포럼' 참가를 계기로 체결된 업무 협약과 지난달 온라인 협의로 진행된 베트남 송전공사의 전력 설비·계통관리 운영시스템 대체 사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비엣텔 솔루션즈는 베트남 최대 국영 통신·ICT 기업 중 하나인 비엣텔 그룹의 ICT 전문 자회사로 베트남 정부·공공 기관, 기업 디지털 전환(DX),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IoT, AI 등 다양한 솔루션을 베트남 안팎에 공급하고 있다.

한전KDN과 비엣텔 솔루션즈의 파트너십 협약 체결 행사에는 박종현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부장과 응웬 치 타잉(Nguyen Chi Thanh) 비엣텔 솔루션즈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현지 솔루션 공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한전KDN의 에너지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력·에너지 분야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KDN은 파트너십을 ▲스마트 시티 & 전자 정부 ▲에너지 및 인프라 디지털 전환(DX) ▲클라우드 & 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AI)·빅데이터 & 사이버보안 분야 관련 자사 솔루션의 현지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비엣텔 솔루션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베트남 현지에 최적화된 솔루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양 국가의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KDN은 비엣텔 솔루션즈와 베트남 내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에너지 ICT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옥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